

지구촌 양계뉴스

대만 일교차 커 닭고기 및 계란 값 급등 전망

대만 윈린(雲林)양계 업자에 따르면 최근 일교차가 커 계란 생산량이 30% 감소했고 영계에서 성계까지 생존율도 약 20%가 하락되었다고 한다. 영계 생장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25도인데, 완전 발육 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인공 보온 조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다고 한다.

최근 기온이 높아 보온 설비를 거뒀다가 다시 한류(寒流)를 맞는 등 기온 차가 커 영계에서 성계까지 생존율이 90%에서 70%로 하락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만 내 닭고기 시장의 주간 필요 수량은 180만 마리이나 약 30만 마리가 하락한 150만 마리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대만 타이난 지역의 양계업자에 따르면 작년 연말 갓 부하한 영계 1마리당 NT\$18불이 었으나 현재는 1.2배인 NT\$21.5불까지 상승했고 성계도 설 이후 600g당 NT\$53불 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간 가격

대비 NT\$36불보다 30%가 상승되었다고 한다.

관련 업자들은 향후 계란, 영계의 가격뿐 아니라 사료비, 보온시설비 원가도 상승하면서 닭고기 시장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월 청명절 이후에나 원래 가격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화현 양계협회에 따르면 계란은 최근 한류 영향 뿐 아니라 작년 상당 수의 계란을 백신 제작용으로 판매하여 영계 수량이 대폭 감소했고, 최근 해외로부터 2만 마리 정도를 수입하여 보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보(聯合報)

육류 식품 수입 전 서면 심사 전면 실시

최근 미국산 햄 락토파민(수육정) 검출 건으로 인해 과거 식품 수입 샘플링 검사에 적발되지 않고 수입되었던 모든 수입 육류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식품약물관리서는 향후 수입산 육류 식품은 대만 수입 전 반드시 서면자료 심사 비

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자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변경 검사 시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육정 함유된 미국산 육류 수입 건, 캐나다산 뼈 포함 쇠고기 수입개방 선포로 인해 네델란드산, 스위스산, 이태리산, 프랑스산, 일본산 등의 육류 식품도 대만 입성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약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수정안 실시 방안인 <수입식품체계적심사실시방법>을 공포하여 소, 돼지, 양고기를 포함한 고위험성 육류 식품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식약서는 <수입식품체계적심사실시방법>이 선진국가의 검사 체계를 참고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 전 반드시 서면 심사 기준을 통해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향후 육류 식품 외 각종 식품을 검사 범위로 포함시켜 고위험성 식품의 수입 전 방지와 근원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식약서도 일부 국가에 대해 현지 목장, 도축장 등 인원 파견을 통한 실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을 시에만 대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만 식품 안전 문제 재발생 방지를 위해 동 검사방법상 식품 안전 중대사건이 발생되었거나 식품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상황 등 특정 상황일 경우에는 심사기관은 체계적 검사 후에도 재차 서면 검사 및 현지 실사할 것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 New Talk

인도네시아

MUI 미국산 닭고기 구매 경고

MUI(이슬람지도자회의)가 소비자들에게 리아우주 바탐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닭다리를 구매할 때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닭다리가 MUI측은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생산된 식품임을 증명하는 할랄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UI 바탐 지부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LPPOM MUI) 담당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닭다리가 인도네시아 외식산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닭은 기계에서 가공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슬람교 계율에 따라 기도 후 도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현재 식품의약품감시청(BPOM)에 이를 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 Jakarta Biz Daily

2015년 수입할랄제품 물밑트 유입될 것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청(BSN)은 이슬람교의 계율에 따르는 것을 표시한 할랄인증을 해외에서 취득한 수입제품이 시장 자유화로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품이 이웃 국가와 비교해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BSN 측은 할랄 인증 권한을 정부에 이관함으로써 취득수속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를 밝혔다.

현지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7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제품은 유통상품 전체의 20% 정도인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전체 상품의 90% 이상이 할랄 인증 제품이다.

오는 2015년 아세안경제통합으로 시장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할랄 제품 유통시장으로 주목받게 되어 수입 할랄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웃 국가보다 뒤쳐져 있는 할랄 인증을 따라잡으려면 기존 할랄인증 기관으로 활동해 온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할랄 인증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국가인증위원회(KAN) 등 정부기관이 할랄 인증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Jakarta Biz Daily(2014-03-11)

홍콩

베트남 전 지역 가금류, 계란 수입 금지

홍콩 식품환경위생부의 식품안전청은 지난 2월 27일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공지에 따라 홍콩 시민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소금에 절인 오리알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홍콩 식품안전청 대변인은 2004년 이래 베

트남산 가금류와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발과 최근 베트남 상황에 대해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발행 정보를 밀착 모니터링 할 것이며, 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 홍콩식품안전청


중국산 생닭 수입 금지령 네 달간 더 연장

H7N9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산 생닭 수입 금지령이 네 달간 더 연장된다.

하지만 홍콩 현지 생닭의 판매는 지난 2월 19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홍콩식품위생국장 코잉만은 조류인플루엔자 테스트 기간동안 중국산 수입 생닭을 홍콩 생닭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는 시간을 고려, 중국산 생닭 수입 금지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 가금류 사육자들과 유통업자들은 중국산 생닭과 홍콩산 생닭을 같은 장소에 몰아넣어, 1월 중국산 생닭에서 H7N9형 AI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검출되었을 때 20,000마리의 닭을 폐사시키는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약 7,000마리의 생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며, 약 12,000마리의 생닭이 홍콩 현지에서 공급된다. 

- SCMP